

미국의 제헌절과

한국의 제헌절

미국 헌법에 관한 의무교육규정

9월 17일은 미국의 제헌절(Constitution Day)이었다. 1787년 9월 17일 39명의 용감한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이 필라델피아에 모여 미국의 헌법을 제정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미 전역의 각급 학교들(대학도 포함)에서 이날 하루는 미국 헌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연방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 법은 2005년에 버지니아주의 상원의원 로버트 버드에 의해 발의가 되어 법으로 시행되었는데 그 이유는 많은 학생들이 대중문화에 대한 상식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미국 헌법에 관한 상식이 결여되어있다는 국립헌법센터의 통계자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25%의 학생만이 필라델피아에서 헌법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1.8%의 학생들만이 제임스 매디슨이 건국의 아버지들 중 한명이라는 것을 알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만일 9월 17일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치게 되면 그 날 전이나 후에 학교에서 헌법에 관련된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연방정부에서 각 학교의 커리큘럼에 관여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교육자들은 제헌절이 되면 학생들에게 미국의 헌법을 제정하게 된 내력과 그 의미, 그리고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수업을 하는데 노력을 경주한다. 어떤 교사들은 제헌절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미헌법의 서문을 외워서 급우들 앞에서 암송하도록 시키는 경우도 있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온 학생들이나 다문화가정에서 자란 학생들은 미국 시민정신이나 미국 헌법에 관한 상식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헌법에 관해 배우는 것은 더욱 뜻깊다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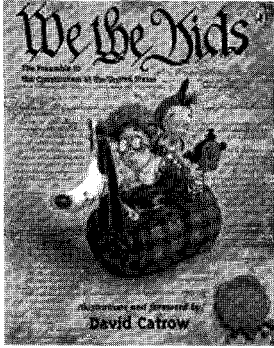


송 은 경

뉴욕주 롱아일랜드 데이비스초등학교
도서관미디어 교사
okjoo07@gmail.com

초등학교 학생들의 도서관 수업

지난 9월 17일 아침 필자는 성조기의 세 가지 색깔을 상징하는 빨간색 티셔츠에 파란색 스웨터와 하얀 바지를 입고 수업에 임했다. 도서관 수업을 위해 학교도서관 미디어센터에



▲ 데이빗 캣로우의 『We the Kids :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온 1학년 학생들에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느냐고 묻자 한 두 명이 손을 들었다. 한 명은 금요일, 또 다른 한 명은 제헌절이라고 대답했다. 그 날이 무슨 날인지 아느냐고 묻자 “싸움하지 않는 날”이라고 대답한다.

필자는 지금부터 약 200년 전 미국이 새로이 탄생되었을 때, 이 나라를 세운 39명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 나라를 안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모두가 지켜야할 규칙들을 정했는데, 그것을 종이에 적은 것이 헌법이라고 설명해주었다.

미 헌법의 서문인 ‘The Preamble’을 데이빗 캣로우가 어린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재미있는 그림으로 나타낸 『We the Kids』를 읽어주며 한 문장 한 문장을 쉬운 영어로 풀이해주고 이 ‘The Preamble’에 흥겨운 곡을 붙여 노래로 만든 비디오클립을 스마트보드를 통해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학교도서관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잘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칙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고 하자 하나 둘 씩 손을 들었다. “밀지 않기, 발로 차지 않기, 이야기하기 전에 손을 들기, 남을 건드리지 않기, 선생님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등의 의견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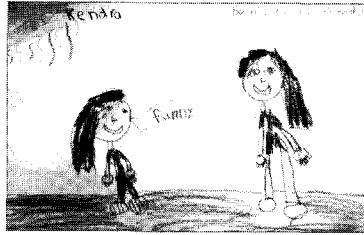


▲ 스마트보드를 이용한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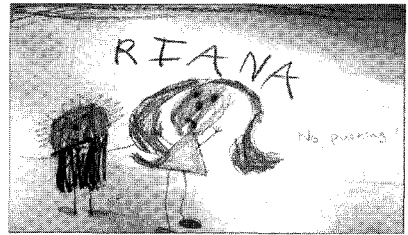


▲ 수업 중인 1학년 학생들





▲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1학년 학생 그림)



▲ "말지 않기"(1학년 학생 그림)

필자는 아이들이 말하는 규칙들을 칠판에 적고, 아이들에게 하얀 종이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칠판에 적은 규칙들 중에서 자기에겐 가장 필요한 규칙을 골라 적고 그 규칙에 관해 그림을 그리라고 하자 아이들이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선생님이 보지 않는 사이에 발로 차이는 아이가 그렇게 많은가 보다. "발로 차지 않기"라고 쓰고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발로 차는 그림을 그린 아이가 한 반에 세 명 정도 되었다. 평소에 손을 들지 않고 말을 아무 때나 하는 습관이 있는 아이들은 "말하기 전에 손을 들기"라고 적고 그림을 그렸다. 그림을 다 그린 아이들이 앞에 나와 자기의 그림을 보여주며 앞으로 자기들이 지킬 규칙들에 관해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일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가르치게 된 수업이지만, 아이들에게 민주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된 것 같아 흐뭇했다.

한국의 제헌절에 대한 아쉬움

한편, 한국의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총선거에서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채택하고 대한민국을 민주국가로 공포하면서 이 날을 국경일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제헌절은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이제는 태극기 게양도 잘 하지 않는 날이 되어버렸다고 한다. 특히나 학교들이 방학에 들어가면서 미국의 제헌절과 같이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헌법에 대한 교육을 할 수도 없고 휴가철이라 국민들의 관심이 헌법제정일에서 멀어져간다고 하니 아쉬운 맘이 든다. (3)